

대행 스님

팔만대장경도 부수고 모든걸 부수고 들어가라

… 이전의 마음이란 걸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천박하지 않고 고상하게 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다면 그때 아주 자유스럽게 요리를 해서 잘 맞춰서 먹을 수가 있다 이거야. 밤에 먹어도 점심이요, 낮에 먹어도 점심이요, 아침에 먹어도 점심이요, 어느 때든 먹을 때마다 점심이지 뭐, 점심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영원한 점심으로서 "그것도 이름해서 점심이지 점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왜 남이 하는 소릴 듣고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러는지, 똑바로 지름길을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름길이라는 자체도 없습니다. 지름길이라는 그 말 자체도 붙지 않는 뎁니다. 그대로 우리가 모든 걸 놔 버리고 사는데, 그대로 놔 버릴 수가 없으니까 놔 버리라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선이라고 하고 육적이라는 것을 악이라 한다면 악도 선도 붙지 않는 자리라는 거는, 그 마음이 악이나 선이 나오기 이전 그 마음자리로 다시금 모든 걸 놔 버린다면, 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놔 버리는 그 자체도 이름 붙을 자리가 못 되지요. 악이다 선이다 이름 붙을 자리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 오이가 생기면 오이 맛있게 무쳐 먹고, 여여하게 말입니다. 감자가 생기면 감자해 먹고, 배추가 생기면 배추 해 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먹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 도리를 알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요것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 고집멸도 사성제나 육바라밀이나 팔정도, 무슨 십이인연법의 문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런 것이 이렇게 돼야만이, 팔정도를 해야만이 쉴 수 있느니라."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팔정도라는 이름조차도 붙을 데가 없으니, 팔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 하나하나,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잠자는 거, 똥 누는 거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

너 자체가 공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공했으니 다 공에다 그냥 몰락 놔 버려라. 밥을 먹고 빈 그릇을 또 생각하겠느냐. 밥을 먹었으면 그뿐이지. 밥 먹고 난 빈 식기를 또 잡아당기고 그걸 놓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 그릇을 비웠으면 그릇이 빈 대로 또 빈 그릇은 돌아가면서, 연방 그 그릇에 또 밥이 담기면 또 먹고 또 비고, 연방 비우고 돌아가는데 거기 붙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처음에 "이 도리를 알아라." 그런 것이, 예전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부처님이다' 이러면 지금 부처나 예전의 삼천 년 전 부처나, 부처의 마음은 오늘의 부처의 마음이나 그때의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음지 양지 없는 골짜기에 뿌리 없는 나무의 소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일착으로 들어가고, 이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내 마음을 찾았으면, '내 마음을 발견했으면' 하는 소리죠, 그게. 발견했으면 이착으로는, 전강 스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석산에 솔이 울었으니 일월은 횡청같이 밝았다' 이거야. 그랬으니 일월이 아니라 심월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심월이 밝았으니 석산에 솔이 울었도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건 이리 바꿔도 되고 이리 바꿔도 돼. "심월이 밝았으니 석산에 솔이 울었도다." "우는구나!" 해도 되죠. 얼마나 좋은 소립니까? 내 마음을 발견했으니 두루, 그 밝은 마음이 두루 했으니!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젖을 일체 중생에게 그릇대로 다 흘려서 넣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벌써 '심월이 밝았으니 석산에 솔이 울었다' 하는 거는 그 두루두루 두루두루 밝혀 주는, 에너지를 넣어 주는 광경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가서는 "삼세심이 공했으니 그대로, 네가 쓰는 것이 그대로 여여하지 않은가."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전자의 부처님 말씀과 지금 부처님들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거지새끼라도 깨쳤다 하면 그것은 예전 부처의 마음이나 지금 부처의 마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중생들 있는 것만치 부처도 있는 것이고, 부처가 있는 것만치 중생도 있는 것이지, 어디 중생 따로 부처 따로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공한 사실을 모르고, 전체가 공한 사실을 모르고, 마음조차 공한 사실을 몰라. 공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놔 버릴 줄 모르고, 항상 자기가 자기라 그러고 가질 줄만 알기 때문에 억겁에 처하는 그 업을 짊어지고 안고 가는, 그런 윤회에 말리는 그런 인간의 고가 놔질 새가 없이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지금 깨달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잘해라'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공했으니까 이 공에다가 모든 것을 다 놔 버려라. 인간이라면 기본 상식을 가졌으니 벌써 일주문에 들어섰으면 우리는 전부 도반이니라. 그러니 여기에다 모든 걸, 공한 도리니 공 안에다 모든 걸 놔 버려라.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놔 버려라. 화나는 것도 놔 버리고 가난한 것도 놔 버리고, 모든 걸 놔 버린다면 스스로, 그것도 생명들이 있어서 그 놔 버린 자에게 좇아오느니라. 좇아와서 내가 스스로 무심으로서 그냥 다양하게, 여여하게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심이요, 그것이 자유인이요, 부처인 것이지, 만약에 하나하나 그렇게 이름을 따져서 좇아다니는 사람은, 영원히 좇아다니다 볼일 못 볼 것이다." 이거야.

지금 불법 도리도 그렇게 좇아다니는데 생활인들 좇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거야. 이름을 붙잡고 좇아다니지, 사람을 보고 좇아다니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단들이지, 일거일동 좋다 나쁘다 좇아다니지. 그러니 영원토록 좇아다니다 볼일 못 보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일이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다 놔 버려라. 맛있든 맛이 없든 다 놔 버리고, 돈이 있든 없든 다 놔 버리고, 그 공 안에다 다 놔 버려라. 어차피 공한 도리고 어차피 공한 내 몸이요, 어차피 모든 물질이 다 공했고 내가 하는 것조차 마저 다 붙을 데가 없이 공해 버렸는데 그 공 안에다 놔 버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한 발짝을 떼어 놓을 때마다 아마 그 업을 짊어지고 다니고 안고 갈 겁니다. 지금 무슨 경이니 무슨 경이니 해 놓고, 또 무슨 말씀 무슨 말씀 해 놓고 어떠한 누구가 설법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즉설로 하셔야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라." 이러는 거는 있을 수도 없어. 왜? 본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공한 도리요, 공 안에서는 절대로 내가 나오기 이전에 이름을 짓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 안에다 놔 버리는데 무슨 이름이 거기에 필요 있겠느냐 이거야. 고(苦)도 놔 버리고 집(集)도 놔 버리고 멸(滅)도 놔 버리고 도(道)도 놔 버리는데 뭐가 거기 붙겠느냐 이거야. 도라는 이름 자체도 놔 버려야 도지 도라는 이름 자체를 쥐고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야.

그러니 모든 것을 부수고 들어가야 돼. 팔만대장경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법이, 용납되지 않는 법이 바로 이런 법입니다. 팔만대장경도 이름해서 팔만대장경입니다. 하도 요술을 잘 부리니까 요술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술을 그렇게 부렸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는 대로 따라서 가다 보니깐 팔만대장경이 된 거지, 팔만대장경이 애당초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을 자리가 못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럼 한마디도 할 게 없네요?" 이러지도 마세요, 또. "한마디도 할 게 없네요." 하면 그것이 또 붙습니다. "한마디도 할 게 없네요." 할 것도 없고 "그럼 과정을 거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요." 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내가 배고프면 그냥 밥 먹고 또 소화가 됐으면 똥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모든 것을 여여하게 그대로 무심으로, 그대로 살라 이겁니다. 자기가 무심으로 사는데,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바로 여래의 집이니, 그 집에서 사는데 '이런 게 이런 게 들

☞ 22면으로 계속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